

광주시, 지역 창업기업 25곳 투자매칭 주선

11월 '창업페스티벌' 성과 위해 사전교류행사 개최 세계적 벤처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 해외진출 상담

광주시가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매칭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광주시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사가 사전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4회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관광공사와 협력기관인 전남대기술지주회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열리는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의 사전 교

류행사도 마련됐다.

지역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대기업 및 투자자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공동 협업·투자유치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창업기업 25개사와 투자 의향이 있는 5000여 원 자금(펀드) 운용사 및 투자사 25개사, 관계기관 등이 참여해 ▲벤처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 강연 ▲

'IBK창공(創工) 광주' 설명회 ▲지역 창업기업 기술발표 및 시연 ▲1대 1 연계(비즈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세계적 벤처투자사이자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미국의 플러그앤플레이가 '글로벌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해외 투자유치와 진출을 상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구글이 조창기 입주해 보육을 받은 기관으로, 페이스북·드롭박스·렌딩클럽 등 35개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포함해 16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투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창업기업 육성기관이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오는 8월 광

주에 개소하는 'IBK창공(創工)' 설명회가 이어졌다.

'IBK창공(創工)'은 광주지역 창업기업 10개사 내외를 선별해 전용 사무공간과 금융 지원, 1대 1 전담 상담(멘토링), 기업설명회(IR), 시연회(데모데이) 등 다양한 사업 고도화 및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별도의 선발과정을 통과한 창업기업은 실리콘밸리와 유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IBK창공(創工) 광주'는 오는 5월 24일까지 창업 7년 이내의 혁신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전기이륜차 213대 보급 '대기오염물질 저감'...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이륜차 213대를 보급한다.

광주시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취약계층·소상공인에게 상반기 150대, 하반기 63대를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최대 지원금 내에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바꾸면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

로 상향 지원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이 구매하면 추가 지급비율을 국비지원액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배달목적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신청은 광주시에 90일 이상 연속 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원동기 및 2중 소형 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이다.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 및 단체 10대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조선주 기자

목포대 송하철 총장 "전남권 국립의대 공모 참여"

전남도가 국립 의대 신설 방식을 기존 목포대-순천대 통합에서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로 선회한데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목포대학교가 공모 참여 의사를 밝혔다.

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16일 광주에서 지역 신문·방송·통신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면서 공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총장은 "(공공기관에서 공모라는 방식이 그래도 중립적인 것이다.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가 최선의 방식이었지만 통합의대가 여의치 않아 안타깝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공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만난 김영록 지사가 공모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 때 목포대와 순천대 양쪽의 의견을 들기로 했다. 일부에서 공모가 편협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봐 극단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재선 성공 후 첫 일정으로 목포대를 찾아 "공모는 실정법에 어긋난다"며 목포대 단독 의대 유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터라 송 총장의 이번 입장에 대한 김 의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세월호 추모 배지' 토리노시 시장 강기정 시장과 이탈리아 토리노시 스테파노 로 루소 시장 등이 세월호 10주기 추모 배지를 달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이탈리아 토리노시 '경제·문화·스포츠·관광' 교류

"경제·문화예술은 물론 관광 등 전 분야에서 교류협력"

광주시와 이탈리아 토리노시가 경제·문화·스포츠·관광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소 토리노시장이 경제·문화·스포츠·관광 분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립미술관과 토리노미술관재단은 소장품 상호 대여,

작가·연극자·기획자 레지던시 교류 등을 추진한다.

또 광주시와 우호협약을 맺은 유럽 도시는 2012년 독일 라이프치히에 이어 토리노가 두 번째이다.

현재 토리노시의 대학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어강좌가 개설됐으며 토리노공대는 국내 5개 대학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제6회 한국-이탈리아 과학포럼,

한국영화 알리기 행사, 이탈리아 한국인예술가협회 등 한인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 제2의 자동차생산도시인 광주는 그 뿌리가 아시아자동차이며 첫 생산 모델인 '피아트 124'가 토리노에서 만들어 졌다"며 "광주에는 유벤투스 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협정 체결을 계기로 토리노시와 경제·문화예술은 물론 관광·학술·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전남, 수출시장 노크...파리 식품박람회 참가 프랑스 시장 개척...10월 19~23일 참가

전남산 친환경 농수산물품이 프랑스 시장 개척에 나섰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10월 19~23일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인 '파리 국제식품박람회(SIAL 파리)'에 참가, 각국 바이어와 전남 농수산물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유럽 수출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파리 식품박람회는 독일 쾰른 식품박람회(ANUGA), 일본 도쿄식품

박람회(푸엑스 재팬)과 함께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수출기업 4개사를 모집 중이며, 부스 임차와 기본 장치비, 통역비, 운송통관비,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내 분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농수산물 수출기업이다.

참가 희망업체는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호기 기자

광주시내버스 "비리 적발 시 처벌 강화해야" 채은지 시의원 주관 토론회...재정 지원 중단 남우 우려도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할세를 투입하고도 시민 편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운송사업자의 부정 및 비리가 적발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나선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강력한 제재 조치로 재정 지원 중단이나 준공영제 사업제외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처분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 요건을 뒤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주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호남매일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